

사우디, 최초의 민주적 지방의회 선거 실시

□ 건국후 최초로 민주적 지방의회 선거 실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05년 2~4월 중에 1932년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참가하는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의 지방의회 선거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하였음. 전국 13주 178행정구의 지방의회 의원 중 반수인 592명을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임명할 예정임.
- 21세 이상 남성에 한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민주선거로 동국의 민주화 진전의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선거 1단계는 이슬람력 신년(이슬람력 1426년 1월 1일, 양력 2005년 2월 10일)에 사우디의 리야드(Riyadh)주에서 실시되었고, 2단계는 3월 3일에 동부(Eastern), 아시르(Asir), 알바하(Al Baha), 지잔(Jizan), 나쥬란(Najran)의 5개주에서, 3단계는 4월 21일에 메카(Makkah), 메디나(Madinah), 카심(Qassim), 알쥬프(Al Jouf), 타브크(Tabuk), 하일(Hail), 북부국경주(Northern Borders)의 7개주에서 실시됨.
- 이번 선거는 2003년 10월에 개혁파 인사 305명이 압둘라 왕세자에게 국민의 정치참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실시된 것임. 당초 2004년 9월에 실시예정이었으나 2차례 연기된 바 있음.

□ 이슬람계 후보들이 주요 지역에서 당선

- 선거 결과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수도인 리야드, 상업도시인 제다, 종교성지인 메카와 메디나 등에서 이슬람계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한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와하비즘의 중심지인 알카심, 부라이다, 우나이자 등에서 이슬람계 후보들은 약세인 것으로 전해짐.
- 선거가 최초로 실시된 리야드주는 총 38개 지방의회, 총 127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1,818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였음. 유권자 등록률은 32%(전체 유권자 47만 명중 15만 명)에 그쳤으나, 10일간의 선거활동 기간중 신문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한 홍보, 인터넷과 포스터에 의한 홍보, 각지에서의 지원 집회 등에 힘입어 평균 투표율은 73.6%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중동지역에 민주화 확산 전망

- 과거 동국의 투표방식은 유권자등록 절차없이 공개투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방식은 유권자등록 후 무기명 비밀투표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전환함.
- 그러나 여성전용 투표소 설치에 따른 문제와 다수의 여성이 신분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투표를 금지하였음.
- 정부는 다음 선거부터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임명의석 비중을 50%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임.

- 이번 선거를 통해 구성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등 단기간 내에 사우디의 왕족들에 의한 지배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동의 대국인 사우디에서 직접선거가 실시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민주화가 다른 중동국가들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전문연구원 도 현 철 (☎3779-6676)

E-mail : loki@koreaexim.go.kr